



◀몽골의 수많은 부족이 다투고 화합하면서 다양한 문화 원형을 만들어 냈다. 몽골국립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몽골 부족의 다양한 전통 의상.

## ‘사고무친’ 테무친 시련 딛고 초원의 칸 되다

몽골=글 오광록·사진 최현배 기자

몽골 사람들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거나 숙취 탓에 머리가 아프면 “어젯밤 타타르에게 당했다”고 말한다. 칭기즈칸의 아버지가 타타르 족이 건넨 독인 든 술을 마시고 죽은 일화를 빗댄 말이다. 몽골은 수많은 부족이 다투고 화해하며 만들어 낸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다.

여러 부족이 모여 만든 나라답게 지역성도 강하다. 해마다 7월 열리는 나담축제와 연말 씨름대회는 보이지 않는 지역 다름이다.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한 지역 경제인들이 돈을 모아 우승자에게 거금을 주고, 이파트와 승용차 등도 후원해 준다. 과거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투를 했던 최근에는 씨름 등을 통해 ‘지역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몽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비사’에도 각 부족의 이야기는 잘 남아 있다. 몽골비사는 몽골족과 칭기즈칸의 22대 선조로부터 칭기즈칸의 3남 오고타이(태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몽골 민족은 자신들이 바이칼을 건너 온 늑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늑대는 초원을 지배했던 몽골족의 상징이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몽골 문화 원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테무진이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초원을 평정한 과정은 몽골인의 강한 생명력을 대변한다. 또 술한 부족이 서로 다투고 화해하며 민족을 형성해가는 과정도 몽골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몽골은 약탈함이 있었던 나라다. 바이칼 호수까지 흘러가는 셀렝가 강 일대에 자리 잡은 메르키트족인 예케 칠레두라는 인물이 예수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긴다. 낯선 사내에게 납치당한 여인은 후엘룬이며 이 여성이 낳은 아이는 바로 칭기즈칸이다.

이 때문에 칭기즈칸의 아버지가 예수께이가 아니라

###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78>

9부 몽골·브랏트 편

#### ▣ 부족 이야기

#### 나이만 연합군 제압한 칭기즈칸

#### 몽골인의 강한 생명력 대변

#### 술한 부족 다투고 화해하며 공존

메르키트족인 예케 칠레두라는 설도 나온다. 칭기즈칸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그의 첫째 아들은 두고두고 칭기즈칸의 아들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칭기즈칸의 아내 보르테가 카타르족에 납치당해 낳은 아이라는 오명 탓에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칭기즈칸의 핏줄로 거론되는 메르키트족은 발해 말갈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몽골을 통일했던 칭기즈칸에게 발해의 피가 흐른다는 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바이칼을 중심으로 고대 종족은 밀접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몽골비사를 장식하는 주요 부족 중 케레이트가 있다. 케레이트라는 명칭은 옛날에 한 군주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피부가 검어 사람들이 그들을 케레이트라고 부르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케레이트는 영지가 접해 있던 나이만과 경쟁한다. 종교는 사머니즘을

신봉하던 대부분의 다른 몽골본토의 부족들과 달리 나이만·옹구트 종족과 함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다.

나이만도 패권을 다투던 부족 중 하나다. 거주지는 알타이산맥과 이르티슈강 사이의 초원에 위치해 케레이트와 인접하고 있었고 적대 관계에 있었다.

테무친에 대항하기 위해 메르키트족, 오이라트족, 타타르족, 키타킨족, 두르벤족, 살지우트족 그리고 알린 타이시(케레이트의 대아미르)와 자무카 세력을 결집한다. 이 전투는 테무친이 초원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나이만의 연합군은 패배하고 타양 칸은 사망했다. 그리고 1206년 테무친이 칭기즈칸으로 즉위한다.

나이만 멸망 과정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나이만의 칸이 하루는 자신에게 바쳐진 머리에 말을 해보라고 하자 그때 몇 치나 입 밖으로 허가 나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믿었고, 결국 부족은 멸망했다.

테무친이 가장 미워한 종족은 타타르다. 과거 타타르와 몽골족은 자주 다투어 원한이 깊었다. 테무친은 전투에서 이기면 포용을 했지만 타타르족은 대부분 살해했다.

메르키트족 역시 타타르족만큼이나 몽골족과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부족이었다. 거주지는 셀렝계강과 오르콘강 하류의 유역으로 몽골족의 영역 서쪽에 있었다.

메르키트는 칭기즈칸의 핏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엘룬은 원래 메르키트족 칠레두의 아내였지만 칭기즈칸의 아버지 이수게이 바하두르에게 납치된 뒤 칭기즈칸을 낳았다. 또 칭기즈칸의 아내 부르테는 메르키트족에 의해 납치되었다 칭기즈칸에게 돌아와 첫째 아들을 낳는다.

메르키트는 케레이트 나이만과 연대해 칭기즈칸에 대항하였지만 결국 칭기즈칸에 의해 패배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메르겐 왕에게 잡힌 늑대 이야기

### 말하는 늑대의 말 현실이 됐다

몽골 초원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 ‘아르스랑대 메르겐 왕’이 유명하다. 이 이야기에선 유목민에게 중요한 재산인 말과 그들이 신성시하는 늑대가 등장한다.

오래전 아르스랑대 메르겐이라는 왕이 있었고, 수백 마리의 말을 길렀다. 어느 날 말이 다 모이지 않자 ‘세 마리 늑대가 잡아먹었을 것’이라 생각한 왕은 갈색 야생마를 타고 사냥에 나선다.

하지만 이 걸 본 늑대들이 “메르겐이 우리를 잡으러 오네, 갈색 암말이 낳은 망아지를 타고 말이야, 저놈은 젊어서 잘 달릴 거야, 그러니 우리는 먼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재빠르게 반대쪽 산 아래로 달아나야 해”라고 말했다.

메르겐이 쫓아오자 늑대들은 달아났다. 처음에는 산꼭대기로 갔다가 반대쪽 산 아래로 달아난 늑대들은 잡히지 않았다.

다음날 메르겐은 코에 하얀 줄이 있는 말을 타고 늑대를 다시 쫓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다시 말을 했다. “메르겐이 이번에는 코에 하얀 줄이 있는 말

을 타고 우릴 쫓을 거라네, 그건 늑대의 말의 망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쟁쟁하게 돌아내려 가서 산꼭대기로 뛰어올라가면 돼.”

메르겐이 말을 타고 쫓아오자 늑대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도망쳤다. 그날 밤, 늑대들은 다시 회의를 했다.

“메르겐의 말 중에서 비실비실한 놈을 잡아먹자.”

“안돼, 그따위 것을 먹어서 뭐해? 이왕이면 살이 토실토실한 암말아지를 잡아먹자.”

결국 늑대들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나이 많은 한 늑대가 이렇게 말을 한다.

“내일 알타이 항가이 산 아래 그늘진 곳에서 만나자, 그 다음에 갈색말 엉덩이 쪽에서 만나자, 이후에는 메르겐의 어깨에서 만나자.”

다음날 메르겐이 다시 늑대를 쫓았고, 늑대들은 말은 현실이 됐다. 늑대들은 알타이 항가이 산 아래 그늘진 곳에서 잡혔고, 갈색 말 엉덩이 쪽에 앉았다. 또 늑대들의 가족은 두툼한 털옷이 돼 메르겐의 어깨에 걸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